

지역 소식통

고창군, 동네상권발전소
지원사업 공모선정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이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동네상권발전소 지원사업'에 선정돼 고창시장 상권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장을 열게 됐다.

군은 이번 공모선정으로 총사업비 1억2,000만원을 확보했다.

군은 먼저, 고창통시장과 인근 상가를 자율상권구역으로 설정했다. 이후 주변 관광자원인 고창읍성과 조양관, 관소리 박물관 등을 활용해 자율상권구역에 유입될 수 있도록 관광형 상권전략을 수립했다.

또한 동네상권발전소 지원사업의 필수과제인 △자율상권구역 지정 △자율상권조합 설립 △상권활성화사업 계획(5개년)을 수립하고 지속가능한 상권전략을 구축하기 위해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 2024 신규 공중보건
의사 배치 및 순회진료 강화

고창군이 농어촌 보건기관 등에서 공중보건 업무에 종사할 '2024년 신규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하고 3개월의 복무를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임용된 공중보건의사는 한의과 3명으로 공중보건의사의 편입자원이 감소함에 따라 복무 만료된 인원보다 의과 2명이 줄었다. 이는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으로 공중보건의사 지원자가 해마다 줄고 있는데 일반 현역병과 대비해 복무기간이 3년으로 긴 점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고창군은 공중보건의사를 의료기관과 약국이 없는 의약분업 예외 지역에 우선 배치하고, 권역별로 보건지소 순회진료를 시행해 주민들에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의료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번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는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환자 진료, 예방접종, 건강상담과 마을 주치 의사제 등 지역주민의 건강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살피는 등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소규모 관광단지 후보 선정

고창군, 고창종합테마파크 등 관광개발 탄력 기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이 '소규모 관광단지 후보'로 선정되면서 고창종합테마파크 등 서해안지역 관광개발에 탄력이 기대되고 있다.

16일 고창군에 따르면, 전남(15일) 정부는 최상목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 지원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소규모 관광단지'는 기존 관광단지의 개발부담금 면제 등 민자유치 혜택에 더해 인구감소지역 혜택(관광기금 융자우대, 재산세 최대 100%감면,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연계 등)이 추가로 지원된다. 후보 대상지로는 고창군을 포함해 전국 7개 시·군이 포함됐

다.

지정요건도 기존 50만㎡에서 5만~30만㎡정도로 줄이고, 관광단지 필수시설도 공공편익과 관광숙박시설을 갖추면 승인할 수 있도록 했다. 지정·승인 권한역시 기존 광역자치단체장에서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이양된다.

이에 따라 고창군의 고창종합테마파크 조성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고창군은 지난해 11월 (주)치매그놀리아 용평호텔앤리조트와 고창종합테마파크 조성사업의 추진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관련절차를 진행 중이다.

특히 아직 개발이 확정되지 않은 주변 부지와 관련, 소규모 관광단지 지

정을 통해 국내·외 많은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노을대교의 조기 착공을 비롯해 갯벌생태복합관광지, 명사십리 관광개발 사업 등으로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앞서 심덕섭 고창군수는 지난달 11일 기재부를 방문해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면담하고 지역 열원인 '노을대교 조기착공'을 위한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 서해안권이 고창종합테마파크단지와 노을대교의 완공으로 국내최고의 생태관광 명소로 거듭 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며 "향후 정부의 후속조치(관련법 개정 등)에 적극 대응하면서 인구소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하반기 외국인 근로자 희망농가 조사

정읍시, 28일까지 신청

정읍시가 농촌인구 감소와 농번기 일손부족으로 인한 농가의 어려움을 덜고자 올해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 농가를 조사한다.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계절적 인력 수요가 큰 농업분야에서 단 기간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28일까지 신분증과 농업경영체등록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농가별 고용할 수 있는 근로자 수는 작물·재배 면적에 따라 최대 9명이다. 미취학 아동 양육 농가, 65세 이상 농업인, 근로조건 우수농가 등 가점 부여 기준을 충족하면 최대 3명을 추가로 신청 가능하며, 향후 이뤄질 법무부 배정심사회의를 통해 최종 배

정인원이 확정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적정 주거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최저시급 이상의 임금 지급, 근로시간 및 휴게·휴일 보장 등 기본적인 고용주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또한 기본 5개월의 체류 기간에서 고용주와 근로자 간 합의를 통해 3개월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시는 올해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532명을 배정받아 현재 269명(MOU 체결 19명, 결혼이민자 가족초청 250명)이 입국해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호소 중인 농가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이후 농번기에 맞춰 지속적으로 근로자들이 입국할 예정이다.

이화수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으로 일손 부족과 임금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고충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정읍지황(숙지황)' 프로모션 진행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정읍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16일부터 5월 16일까지 한 달간 정읍지황(숙지황) 판매소비촉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이번 프로모션을 통해 생화차집 등 숙지황을 사용하는 경영체는 숙지황 20kg 단위당 20%를 지류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경영체는 질 좋은 숙지황을 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고, 소비자는 명품 정읍 지황으로 달인 생화차를 맛볼 수 있어 정읍 특산물인 지황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정읍지황은 조선시대

임금님에게 진상했을 정도로 맛과 질이 뛰어나다"며 "생화차거리를 찾아 정읍 생화차를 맛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읍의 생화차가 특별하다고 여겨지는 이유는 생화차의 주재료인 '지황'의 주산지가 정읍이기 때문이다. 현재 정읍에는 약 50개소의 생화차집이 운영되고 있으며, 매년 수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생화차거리에서는 정읍만의 전통적인 향과 추억을 맛볼 수 있다.

이번 프로모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정읍지황유통박람회단 홈페이지(www.정읍지황.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제36회 대통령기 전국시도대항 요트대회 (사진=부안군청 제공)

대통령기 전국시도대항 요트대회 부안서 성료

대한요트협회(회장 박범규)가 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요트협회(회장 진효근)가 주관한 제36회 대통령기 전국시도대항 요트대회는 지난 15일 오후 1시 열린 시상 및 폐회식을 끝으로 5일간의 열전이 막을 내렸다.

이번 대회에는 초등부부터 일반부까지 총 153척, 186명의 전문선수가 출전하는 종합요트대회로, 2024년도 제2차 국가대표선발에 랭킹포인트가 부여된다.

또 바다에서 유일한 해양스포츠 종목인, 요트가 국민들에게 관심이 더욱 높아지면서 각 17개 시도의 대표들은 고장의 명예를 걸고 치열한 경쟁에 돌입했다.

대회결과는 부안광역시시 총점 730점으로 종합우승하였으며 600점의 강

원특별자치도가 준우승, 560점의 경상남도 3위를 하였으며, 전북특별자치도는 420점으로 6위의 성적으로 중상위권으로 도약했다.

국가대표선발을 겸한 이번 대회에 전 종목에서 치열한 순위 레이스가 있었으며, 특히, 부안군청 요트실업팀의 조수철선수가 포물러카이트급에서 1위, 김근수, 안선진선수의 49er급에서 2위, 이광연 선수의 ILCA 7급에서 2위를 달성하였으며, 전북특별자치도 요트협회 소속의 전북베이크리고등학교 윤서윤, 송아린선수가 420급에서 1위, 유진석선수의 ILCA 7급 2위, 방기현선수의 ILCA 6급 2위, 하서중학교 최소운선수의 ILCA 4급 3위를 하는 등 전북특별자치도 선수단이 선전을 한 대회였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마실영화관, 부안군 복합커뮤니티센터로 이전 20일 개관

부안마실영화관이 부안터미널 옆에 조성된 부안군 복합커뮤니티센터로 이전해 20일 개관한다.

마실영화관은 부안군에서 군민의 문화향유를 위해 건립한 작은영화관으로 2014년 부안예술회관에서 자리잡은 이후 10년 만의 이전이다.

새롭게 단장한 마실영화관의 개관식은 20일 오후 3시로 마실영화관 1관에서 진행될 계획이다.

개관식은 어린이, 장애인, 청년, 노인 등 각 계층을 대표하는 주민과 함께 진행되며 앞으로 마실영화관이 우리 지역의 문화사랑방으로 거듭나길 바

라는 기대를 모아내는 자리이다. 식종료 후 오후 3시 30분부터 온 가족이 함께 관람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 '쿵푸팬더4(더빙판)'가 상영된다.

19일부터 인터넷에서 부안마실영화관 검색 후 디트리크 홈페이지(www.dtryx.com)를 통해 예매하거나 개관식 당일 현장에서 관람권을 발급받아 관람할 수 있다. 당일 영화 관람객에 한해서는 개관 기념으로 팝콘을 무료로 증정한다.

영화관은 1관 99석, 2관 53석으로 2개 관을 합쳐 152석으로 기존에 비해 객석이 40여 석 늘어났다. 관람료가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소폭 올랐지만, 객석에 비해 스크린이 커졌으며 영화를 입체적으로 느낄 수 있는 3D 관람도 가능해졌다.

추후에 부안사랑상품권과도 가맹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재개관하게 되는 마실영화관은 (재)부안군문화재단이 새롭게 운영을 맡았다.

재단은 문화사업의 일환으로 영화관을 운영하며,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마실영화관이 지역민의 일상적인 문화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